

2002년 11월 2일

부산지역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회견문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정책에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 계시면 정책의장께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당 대통령후보 노무현입니다.

오늘 저는 참으로 벅찬 감회를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무현이 다시 부산에 왔습니다. 국회의원 그리고 시장후보가 아니라 이번에는 대통령후보로서 부산에 왔습니다. 대통령후보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를 당당히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당이 힘을 합하고 있고 국민들도 성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난 국회의원선거 때 저는 부산시민 여러분께 굳게 약속했습니다. 부산시민의 은혜를 받고 자란 노무현이 2년 뒤에는 반드시 대통령후보가 되어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산의 아들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정치를 하면서 저는 부산에서 세 번을 낙선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두 번 그리고 시장선거 한 번 이렇게 세 번을 떨어졌

습니다. 그때마다 주변에서 무모한 도전이라고 말리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편안하게 정치를 하자는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번도 부산시민을 합해보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정치를 지배한 그토록 높은 지역감정의 벽 앞에서도 저는 부산시민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표를 주시지 않은 분들도 있었지만 저의 재개를 성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산시민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제가 있을 수 있었고 마침내 대통령후보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부산은 군사독재의 흑독한 탄압 아래에서도 민주주의의 불꽃을 지펴낸 민주화의 성지입니다. 수출산업의 중심이자 관문으로서 경제근대화를 이끈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막중한 소명과 대한 자부심을 가져온 부산이 이제 또 한 번 도약의 역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저 노무현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남과 북이 그리고 동과 서가 서로 갈라져서 반목하고 대립하던 분열의 역사를 마감하고 잠들어 있던 우리 한민족의 옹호한 비상을 일깨우겠다는 가슴 벅찬 꿈이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지역은 동북아시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를 주도하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지금 그 기초가 다져지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철도가 연결되고 있고 그 철도는 머지 않아 만주를 거치고 시베리아를 거쳐서 유럽대륙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출발지가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런던까지 부산에서 리스본까지 육로가 굴립니다. 태평양을 건너 온 물자가 부산역을 출발해서 중국과 중앙아시아 러시아와 유럽대륙까지 운송됩니다. 대륙의 물자를 실은 선박이 부산항을 출발해서 태평양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물자와 자본이 대한민국의 몰리고 대한민국에서 다시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 중심에 부산이 있습니다. 부산은 대륙의 시작이자 해양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新동북아시대를 열어가는 세계물류의 거점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를 위해서 부산신항조기 건설 등 항만시설의 확충과 신공항건설 육상수송망과의 조속한 연계등 관련인 인프라를 대폭 확대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항만배후단지를 물류중심의 경제특구로 지정해서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항만운영의 효율을 위해서 항만공사를 조기에 설립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2008년까지 부산의 항만물류산업 규모는 3배이상 확대될 것입니다.

항만물류산업 종사자가 11만명이 한해 60조원 이상을 벌어들임으로써 부산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부산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제일 큰 구상은 자동차 선박 등 부품소재산업을 부산의 새로운 특화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조선 기자재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자동차부품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추진 나갈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현재 감천항과 녹산공단 내에 설치되어 있는 조선산업단지를 집중육성하고 자동차부품협동화단지를 치사과학단지에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부산 경남 공동으로 첨단산업연구단지인 가야밸리를 조성하고 외국의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는 등 부산을 동북아지역의 첨단부품소재 공급기지로 발전시켜서 지역경제 발전의 큰 축이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부산이 동북아물류의 전초기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냉전적 사고와 대결적 자세로는 한반도 나아가서는 동북평화의 이룰 수가 없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만이 평화를 구축하고 국가와 지역 그리고 세계를 향한 새로운 꿈과 희망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저 노무현은 대한민국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평화로워야 전 세계의 자본과 물자가 한반도로 몰려들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민 여러분! 지방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산과 서울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부산의 자원과 인재는 모두 서울로 빠져나갔습니다. 부산지역 총생산액이 80년대 이후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방을 살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실천적인 의지로써 과감한 분권정책과 지방화 전략을 추진해야 지방이 발전합니다. 첫째, 분권정책의 핵심은 자치권의 대폭 확대와 재정개혁을 통한 재정분권입니다. 지방분권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지식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경제분권 내지 재정분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로는 지방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지역의 인재가 지방에 머무르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방분권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방대학을 서울대학수준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방대학이 지방산업의 기술혁신을 앞장서서 이끌고 지방의 연구개발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며 나아가서는 지방기반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지식기반 중심센터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대학이 살아야 그 지역의 기획기능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대학이 서울에 의존하지 않는 지방의 기획기능 기획역량을 담당하는 지방의 기획중심지로 우뚝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명실상부한 지방의 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미 행정수도의 이전을 주장했습니다. 수도권 한 가운데 앉아서 지방발전을 아무리 얘기해 봐도 결국은 수도권 중심의 사고와 정책에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의 관점에서 지방을 바라보아야 지방화시대를 열 수 있는 지방의 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방에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거기에서 국가정책이 이반됨으로써 지방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지방시대를 열 수 있는 지방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화시대를 열어 나갈 작정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구상과 계획이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선대위 정책위의장이신 임채정의원께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저 노무현은 어느 당의 특정 후보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낡은 썩은 舊시대의 정치와 맞서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어렵고 불리한 여건에서도 불의와 타협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원칙을 지키고 정도를 걸어왔습니다. 부산의 아들로써 부끄럽지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과거로 되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미래로 나아가는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는 3김시대의 정치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3김 이후의 새로운 정치의 시대로 돌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새로운 시대를 열어 보이겠습니다.

특권이 지배하는 숨막히는 세상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보통 국민들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이 참다운 주인이 되는 국민대권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분열이 아닌 통합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남북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교류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한반도의 시대 그리고 새로운 동북아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부산이 그 선봉에 서주십시오. 오는 12월19일 대통령선거에서 반드시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다시 인사드리러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